

2년간 복막투석을 시행했던 소아에서 발생한 피막성 복막 경화증 1예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소아과

이현영 · 백경훈 · 진동규

서 론 : 피막성 복막 경화증 (Encapsulating peritoneal sclerosis, EPS)은 장기간 복막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종종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소아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반복적인 복막염이 발생하거나 복막투석의 기간이 길수록 피막성 복막 경화증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신부전으로 복막투석을 받던 중 반복적으로 복막염을 경험하고, ultrafiltration failure로 복막투석을 중단한 뒤 혈액투석을 시행하던 소아에서 피막성 복막 경화증이 발생한 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 15세된 남자 환아가 복통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환아는 4년 전 만성신부전으로 진단받고 1년간 복막투석 시행 중 2차례의 복막염 (Pseudomonas)이 발생하여 혈액투석으로 전환했었다. 1년 6개월 정도 혈액투석을 시행하다가 다시 복막투석으로 전환하여 1년간 복막투석을 시행하였고 1차례의 복막염 (coagulate-negative Staphylococcus)이 더 있었다. 내원 5개월 전부터 ultrafiltration failure로 인해 혈액투석으로 전환하여 시행 중이었다. 내원 당시 복부팽만과 장 마비의 증상을 보여 금식을 시작하였고 항생제와 정맥영양을 공급하였다. 복부 초음파와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상 EPS에 합당한 소견을 보였고, 커다란 복강내 낭종과 소장의 전반적인 부종 및 복수가 관찰되었다. 낭중에 경피적 배액관을 삽입한 결과 혈성 삼출액이 다량 배액 되었다. 약 15일간 배액 후 배액량이 점차 감소하여 경피적 배액관을 제거한 후 증상을 관찰하였다. 약 1개월 후 복부 팽만이 다시 생기고 복강내 낭종이 커지는 소견을 보여서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시 복막과 장의 유착이 심하였고, 두꺼운 피막을 이루는 낭종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일부 복막을 포함하는 경화성 낭종을 절제해 내었다. 수술 후 항생제와 정맥내 스테로이드 (Solumedrol 1 mg/kg/day)를 투여하면서 혈액투석을 계속 진행하였고, 특별한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결 론 :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2년) 복막투석을 시행하였는데도 EPS가 생긴 소아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현재 복막투석을 시행하고 있거나, 이전에 시행했던 소아에서도 위장관 증상이 있는 경우 복막투석의 기간에 관계 없이 EPS 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